

# 가장 작지만 우주보다 광대한 미생물의 세계

## 100개의 미생물, 우주와 만나다

플로리안 프라이슈테 외 지음, 유영미 옮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곰팡이가 있다. 바로 사카로미세스 파스테리아누스다. 발효 맥주 양조에 쓰이는 균이다. 덴마크 식물학자 한센이 코펜하겐 칼스버그 양조장 실험실에서 효모 세포를 분리 추출해 배양에 성공했다.



미생물은 지구 생명의 시작이면서 인류의 오랜 동반자였다. 아주 미세한 크기의 미생물은 무공무공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미생물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5만 여년 전 초기 인류가 이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몸속에서 생존해왔다.

100가지 미생물로 미생물의 역사를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지금 지구에 소행성이 돌진해 온다면'과 '소행성 적인가 친구인가'의 저자 플로리안 프라이슈테와 사회·지식·커뮤니케이션 센터 소장인 헬무트 웅비르트가 공동으로 기술했다.

책에는 질병, 감염과 같은 달갑지 않은 주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주로 미생물이 하는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일례면 이런 것들이다. '미생물 덕분에 공휴일이 생겼다', '미생물이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끼쳐 기후 보호에도 영향을 준다'는 등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한다.

미생물은 재미있고, 우습고, 특이하고, 신기하고, 인상적인 존재' 들이다. 100개의 미생물에 얽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세상'을 보여준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세균이 있다. 이 세균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가톨릭교회의 성체축일과 관련돼 있



대부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미생물은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왔다.

다. 구체적으로 보헤미아 사제 페터 폰 프라그 덕분에였다. 그는 가톨릭 미사 중 행하는 성체성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했다.

불세나에서 미사를 접전하며 성체성사를 위해 빵을 찢었는데 그 안에 핏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봤다. 이에 교황 우르바누스 4세는 '불세나의 피의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이후 '성체성형 대축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토양이나 동, 식물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 세균으로 알려졌다. 근처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로디지오신'이라는 붉은 핵소를 생성한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인류의 가장 오랜 동반자다. 인간에게 이 균은 늘 좋은 '세입자'가 아니다. 염증, 위

과양을 비롯해 위암을 유발한다. 이 박테리아는 인류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의사 배리 마셜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마살은 스스로 실험 당사자가 돼, 환자의 위 속 박테리아를 채취해 이를 수프에 섞은 '헬리코박터 칵테일'을 마셨다. 마살의 실험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장에서 살 수 있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균은 위산에서 위 점막을 보호하는 위벽을 파괴해서 그 속에 놀라움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염증 반응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책은 한마디로 인류와 함께해온 미생물 오디세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은 생명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면 인류의 생활도 좀 더 평화롭게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자들의 바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동물, 채소, 정크푸드=수많은 미국인에게 육류의 과잉 생산과 과소비, 만성 질환, 지구 온난화 사이 관련성을 설명해 온 마크 비트먼의 저서. 정크푸드는 우리의 식단을 장악했고 전체 인류 절반의 수명을 단축하는 공중 보건 위기를 야기했다. 식품 산업에 대한 비판, 작가는 농업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할 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더욱 흔해진 현실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1만8000원 김재용 옮김〉



▲사춘기라는 우주='사춘기 심리 서사의 대가' 황영미 작가의 첫 에세이집, 슬하에 두 남매를 두고 있는 황작가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불리는 사춘기를 특유의 익살과 재치 넘치는 문체로 풀어간다. 책에 '잡을 안'을 새기며 사춘기 자녀 양육기를 지내온 엄마의 마음이, 그러나 생을 돌아봤을 때 '내 영혼의 리즈는 사춘기였다'고 말하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림버드·1만5000원〉

▲기록을 적는 사람들=대구 중구 남산동의 인쇄공들의 역사와 삶이 담긴 책, 밤낮이 종이를 찍는 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차츰 잊어갈 시작됐다. 호황일 땐 2000개 업체가 모여 있었지만 현재는 1/4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나 둘 떠나는 이들을 바라보며 인쇄업을 곳곳이 지켜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책에

는 인쇄업의 쇠퇴와 고령화, 재개발 문제로 생업에 대해 고민하는 인쇄공들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다. 〈산지니·2만5000원〉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지금 창업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가? 외모는 어떻게 바뀌야 멋져보일까?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책은 무수히 쌓이는 인류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중심 인생 해법'을 권한다. 책은 삶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 직감을 먼저 말고 데이터를 믿도록 조언한다. 〈더퀘스트·1만88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진짜 조상을 찾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알 껍데기를 껍데기 닭이 먹던 닭들은 문득 더 많은 알을 위해서 더 많은 암탉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알과 닭 중 누가 먼저인가,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상 찾기에 모두의 관심이 쏠린다. 그러던 중 누군가 직접 상상 속의 조상을 만들어보라고 제안한다. 이제 더는 조상이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가장 창의적으로 조상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꿈터·1만4000원〉

시로부터 지켜주겠노라 약속하지만 가방에서 튀어나온 새미는 도심 속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다. 새미를 찾기 위해 도시 곳곳을 뛰쳐다니는 마야는 어느새 도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국민서관·1만3000원〉

▲우당탕탕 도시 모험=마야는 모험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야기 고양이 새미와 도시로 떠나게 된다. 마야는 새미를 복잡한 도

▲숲은 몇살이에요=여섯 살 생일을 맞이한 마미는 할머니와 함께 케이크 위에 엮을 산딸기를 찾기 위해 할머니 손을 잡고 숲으로 향한다. 얼마 안가 마미는 오솔길 사이 산딸기가 가득한 가시덤불을 발견한다. 할머니는 새미가 자라 나무가 된다고 말한다. 숲 속의 나무들은 몇살일까? 제일 키가 큰 나무는 몇미터일까? 마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 〈머스트바·1만3000원〉

# 학벌·시험능력주의·양극화 얼룩진 한국사회의 민낯

## 2022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편혜영 외 지음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의 작가 김승옥의 이름을 딴 '김승옥 문학상'은 등단 후 10년 이 넘는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1960년대 한국 소설의 빛나는 한 정점을 보여준 작가 김승옥의 등단 오십주년을 기념해 2013년 KBS순천방송국에서 제정한 문학상으로 2019년부터 순천시의 지원으로 문학동네가 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성희의 '어느 밤', 김금희의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다', 문진영의 '두 개의 방'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 김승옥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나왔다. 수록작품은 대상 수상자인 편혜영의 '포도밭 묘지'를 비롯해 후

보작이었던 김연수의 '진주의 결말' 등 모두 6편이다. 올해 심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요 문예지와 웹진, 독립문예지를 포함한 총 26개 문예지의 171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작 '포도밭 묘지'는 1990년대 함께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4명의 친구가 이후 삶의 현장에서 '고졸 출신 여성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저마다 꿈을 품고 세상에 나온 친구들 중 한 친구는 누구보다 빨리 외로운 죽음에 도달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처지를 전전하는 등 평탄치 않은 삶을 보낸다.

시험능력주의, 학벌신분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수상작에 대해 김화영 평론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반항과 항의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소설이라고 평했다. 이 작품은 일곱명의 심사위원이 진행한 첫 투표에서 최다투표를 차지했고 결국 대상 수상작이 됐다.

김연수·김애란·구병모·문지현·백수린·정한아 등작가들의 작품은 바로 현대한국문학의 오늘을 보여준다.

김애란의 '휴파티'는 걱정과 동정이라는 가면을 쓴 채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탐욕스럽게 관음하는 상층계급의 기만을 폭로한 작품으로 청년의 좌절과 심화된 양극화로 얼룩진 2020년대 한국에서 밀려난 이들이 다시 주인공으로 올라서는 통쾌한 반격을 그리고 있다.

김연수의 '진주의 결말'은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떠안은 여자의 마음을 분석하던 범죄심리학자가 분석이 결코 가닿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에 이르는 소설이다.

문지현의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어릴 적 수사고 교통사고를 가까스로 벗어났던 화자가 자신과 한국 사회에 그 사고가 남긴 흔적을 소설과 논문으로 쓰려다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나이 들어 얻은 독신생활의 평온을 만끽하던 중 딸 내외가 떠날 것임을 알게 된 한 노년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백수린의 '아주 환한 날들', 방황하는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만나는 정한아의 '일시적인 일탈'도 실렸다. 〈문학동네·1만원〉

7/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